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Reuters: 5월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 하락...침체 신호 져
- WSJ: 필라 비즈니스 활동 지수, 5월과 6월 계속 저조...마이너스 4.0
- YahooFinance: 5월 주택 판매 약간 상승...높은 모기지가 여전히 발목 잡아

[미국 금융]

- Bloomberg: 달러 상승 완화...연준 이사 "7월 금리 인하 지지"로
- Investopedia: 미 가구 순자산, 2년 만에 첫 감소
- Bloomberg: 모건 스탠리, "지정학적 매도세 빨리 완화"
- WSJ: 스테이블 코인, 메인 스트릿 은행에 개방

[미 세제 개혁안]

- Bloomberg: 트럼프 세제 개혁안 상원 표결 앞두지만 지역 가능성도
- Bloomberg: 연방 친환경 에너지 폐지, 공화당 지역구에 타격

[중동 위기]

- CNBC: 유조선들, 호르무즈 해협 운항에 신중

[글로벌 경제]

- WSJ: 관세 및 중동 전쟁에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 활동 회복세 유지

[인공지능]

- WSJ: 주커버그, 고액 연봉 제안하며 AI 인재 채용 주도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알리바바, 핵심 전자상거래 사업부에 음식 배달 및 온라인 여행 통합
- CNNBusiness: 크로거, 내년 상반기까지 60여 개 지점 닫는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Reuters: US leading indicators slip in May, triggering recession signal, Conference Board says

5월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 하락...침체 신호 져

- 5월 미 향후 경제 활동 지표가 6개월 동안 연속 하락하고 있어 침체 신호를 앞당기고 있다. 이같은 지표는 소비자의 비관적인 입장, 제조품의 신규 주문 약세,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증가, 건물 신축 허가 건수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
- 컨퍼런스 보드의 5월 선행지수는 0.1% 하락한 99.0을 기록했는데 전원은 1.4% 하락한 수치를 보여 팬데믹 초기인 지난 2020년 봄 이래 가장 높은 하락세를 기록했었다.
- 트럼프의 관세 조치 임시 유예로 5월 증시가 반등해 선행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이는 다른 요인들 때문에 상쇄됐다.

- 컨퍼런스 보드의 경지 사이클 지수 매니저인 Justyna Zabinska-La Monica는 4월에 선행 지수가 크게 낮아진 후에 5월에도 하락해 선행지수의 6개월 성장은 더욱 악화되어 침체 신호를 키웠다고 말했다. 즉, 컨퍼런스는 침체를 예상하지 않지만 올해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어 실질 GDP가 1.6%를 지지하고 관세로 인해 내년에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uters 기사

WSJ: Philadelphia Area Factory Activity Remains Subdued 필라 비즈니스 활동 지수, 5월과 6월 계속 저조...마이너스 4.0

- 필라 연준의 월간 설문 결과에 따르면 6월 필라 지역 비즈니스 활동 지수가 5월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로 나타났다. 낮은 수치를 계속 보이고 있다.
- 신규 주문과 출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고용 감소 상황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다.
- 가격 지수는 다소 완화됐지만 기업들은 계속적인 물가 상승을 보고했다. 향후 6개월간의 성장 기대감은 감소했다.

WSJ 기사

YahooFinance: Home sales rose slightly in May, but high mortgage rates are still hurting the market

5월 주택 판매 약간 상승...높은 모기지가 여전히 발목 잡아

- 5월 주택 판매가 약간 상승했다. 높은 모기지율과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움츠려온 주택시장이 다소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다.
- 전국부동산협회의 오늘 월요일 발표에 따르면 기존 주택 판매가 4월과 비교해 0.8% 상승해 시즌 조정치로 연율 4백만 3만 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당초 1.3%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작년과 비교해서는 판매가 0.7% 하락했다.

YahooFinance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Dollar Surges as Mideast Escalation Spurs Inflation Risk 달러 상승 완화...연준 이사 "7월 금리 인하 지지"로

- 달러가 오늘 월요일 급등세를 보이다 상승분을 반납했다. 연준 이사인 Bowman이 빠르면 올 7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후 상승세가 완회되었다.
- 오늘 아침 달러가 거의 한 달 만에 최고치를 상승세를 보였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으로 오일가 상승과 인플레 우려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다.
- 블룸버그 달러 현물 인덱스가 5월 이후 최고치였던 0.6%까지 상승세를 보였다. 엔화와 비교해서는 1% 이상 상승했었다.
- 지난주에는 3년래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다가 중동의 갈등 악화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2월 하순 이래 주간 단위로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

다.

Bloomberg 기사

Investopedia: Household Wealth Fell for The First Time In 2 Years. Here's Why It Will Bounce Back

미 가구 순자산, 2년 만에 첫 감소

- 관세 위협이 증시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미 가구의 순자산은 올해 1분기에 감소했다.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 지난주 연준에 따르면 미 가구들의 순자산은 올해 1분기의 경우 1조6천억 달러가 줄어든 1백69조 3천억 불로 나타났다. 미 가구의 순자산은 작년 4분기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 물론 관세 조치가 후퇴하면서 2분기에 증시는 반등했다.
- 증시 성장은 부유층 가구의 순자산을 성장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주식이 없는 중저소득층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가구의 60%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Investopedia 기사

Bloomberg: Morgan Stanley's Wilson Says Geopolitical Selloffs Fade Fast

모건 스탠리, “지정학적 매도세 빨리 완화”

-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브렌트유가 5.7%까지 가격이 상승했으나 상승분의 대부분을 반납했다.
- 모건 스탠리 전략가들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매도세는 전반적으로 단기적 완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오일 가격이 변동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혼란시켜 오일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오일 가격이 비즈니스 사이클에 위협이 될 정도가 되려면 배럴당 120불까지 상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WSJ: Stablecoin World Opens Up to Main Street Banks

스테이블 코인, 메인 스트릿 은행에 개방

- 금융 기업인 Fiserv는 대략 3천 개의 지역 및 커뮤니티 기업 고객들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과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 해당 플랫폼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과 호환하게 되며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금융과 연계시키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Fiserv의 스테이블 코인인 FIUSD는 사기 방지 통제 서비스를 갖고 있으며 대형 은행들이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SJ 기사

[미 세제 개혁안]**Bloomberg: Senate Readies Tax Bill for Vote as Holdouts Threaten Delay**
트럼프 세제 개혁안 상원 표결 앞두지만 지연 가능성도

- 이란에 대한 미국의 폭격으로 미국의 중동전쟁에 대한 개입 리스크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의 세제 개혁법안이 이번 주 상원에서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까워지고 있다.
- 그러나 트럼프의 4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안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될 정도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상원에서 재정 보수파 의원들은 전체 법안의 재정 비용을 줄이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지역 주민용 메디케이드 비용 삭감과 그들 주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단계적 폐지에 우려하고 있다.
- 일정대로 처리된다면 상원은 이번 주말에 그리고 하원의 수정안에 대해 다음 주에 표결해 7월 4일까지는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Clean-Energy Project Cancellations Hit GOP Districts**Hardest****연방 친환경 에너지 폐지, 공화당 지역구에 타격**

- 연방 세제 법안에 포함된 친환경 에너지 세금 공제 폐지와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공화당 지역구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1백55억 불에 해당하는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가 지난 1월 이래 취소되고 지연되고 있다. 이중에 공화당 지역구에 투자하는 90억 불 상당의 친환경 프로젝트로 1만 2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 결국 친환경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

Bloomberg 기사

[중동 위기]**CNBC: Tankers showing caution around Straight of Hormuz after U.S. attack on Iran nuclear sites****유조선들, 호르무즈 해협 운항에 신중**

- 유조선들이 봉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항해를 바꾸고 있다.
- 유럽 해상무역 관리 기관인 UKMTO에 따르면 이 해협에서는 광범위한 전자파 간섭과 GPS 신호의 방해 및 위치 정보 위조 변경 신호 등으로 선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 이는 미국이 지난 토요일 이란의 핵농축 시설 세 군데를 포격하고 이란이 해협 봉쇄를 위협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WSJ: Global Business Remains Resilient in Face of Tariffs, Middle East War

관세 및 중동 전쟁에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 활동 회복세 유지

- 불확실한 글로벌 무역 정책과 심화되는 중동 갈등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아시아의 기업 활동이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동을 측정하는 유로존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는 기업 활동이 꾸준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일본, 호주, 인도의 지수 또한 모두 상승하며 경제 전반의 가속화를 보여줬다.
- 독일 제조업은 신규 주문이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영국 역시 4월 이후 경기 활동이 활발해졌다.
- 그러나, 중동 갈등 심화에 따라 이러한 흐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베렌버그 증권 경제학자 Holger Schmieding은 “석유 및 가스 수출이 심각하게 방해받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WSJ 기사

[인공지능]

WSJ: Zuckerberg Leads AI Recruitment Blitz Armed With \$100 Million Pay Packages

주커버그, 고액 연봉 제시하며 AI 인재 적극 채용

- 마크 주커버그는 메타가 새로 구축하는 “Superintelligence Lab”을 위해 AI 기술을 가진 인재 채용에 적극적이다.
- 그는 수백 명의 연구원, 과학자, 엔지니어 등에게 직접 연락하며, 일부 최상위 인재에게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채용 대상자들에게 자금이나 컴퓨팅 자원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 이러한 채용 공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잠재 채용 대상자들은 메타의 인공지능 방향성과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메타 합류를 주저하고 있다.
- Open AI CEO Sam Altman은 AI에 관한 주커버그 개인의 접근과 막대한 자금을 결합하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지는 불확실하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Alibaba Folds Food Delivery, Online Travel Services Into Core E-Commerce Unit

알리바바, 핵심 전자상거래 사업부에 음식 배달 및 온라인 여행 통합

- 중국의 주문형 배달 및 온라인 여행 부문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알리바바는 식품 배달 사업체 Ele.me와 온라인 여행사 Fliggy가 회사의 전자상거래 부문에 통합될 것이라 발표했다.
- 최근 알리바바는 4월 쇼핑 플랫폼에 빠른 배송 기능을 추가한 후 2개월 만에 일일 주문량이 6,000만 건을 돌파하며 경쟁력을 갖추었다.
- 알리바바 CEO Eddie Wu Yongming은 Ele.me와 Fliggy는 독립적인 기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전자상거래 부문의 전략에 긴밀히 맞출 것이라 밝혔다.

WSJ 기사

CNNBusiness: Kroger is closing around 60 stores in the next year and a half

크로거, 내년 상반기까지 60여 개 지점 닫는다

- 크로거가 향후 18개월 내에 전체 지점의 5%인 60여 개 지점을 폐쇄할 예정이다. 이는 경쟁사 Alberstons와의 합병이 무산된 지 몇 달 만에 나왔으며, 현재도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 크로거는 폐쇄로 인해 약 1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폐쇄 대상 매장 직원들을 인근 매장으로 재배치하겠다 밝히고 절감 비용은 고객 경험 향상에 투자할 계획이라 밝혔다.
- 한편, 크로거는 소비자들이 외식 대신 집에서 식사하는 추세를 따르기 시작하며 수혜를 보고 있다. 또한 2,000여 개 제품의 가격을 내리고, 자체 브랜드 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매출 증가에 기여해왔다. 이에 따라 크로거는 연간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그러나, 크로거 임시 CEO Ron Sargent는 “모든 매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지속 가능한 실적을 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내비쳤다.

CNNBusiness 기사

[보고서]

[美 이란 공격] 호르무즈 봉쇄 위기...글로벌 원유운송 마비할 수 있는 '요충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 운송 韓 수입 중동산 원유 99% 호르무즈 통과
피습 반발해 이란 의회 해협봉쇄 의결 국가안보위의 최종 결정만 남아
봉쇄시 유가 최대 130 달러 전망 美부통령 "봉쇄 이란 입장서 자살행위"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이자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것이라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길이 약 160 km에 좁은 곳은 폭이 약 50 km 정도에 그치지만 페르시아만을 대양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해로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막대하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